



2018년 4월 1일(제869호) 주님 부활 대축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2018년 부활메시지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마르 16,6)

했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주님이신 예수님, 당신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미의 기도를 바치며 부활 절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I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공경했던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위험을 무릅쓰고 안식일 다음 날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마르 16,6)는 천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훗날 예수님의 이 부활을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는 요소로써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라고 고백하도록

II

저는 이 뜻깊은 부활 대축일을 맞으면서, 교회의 기도서인 ‘성무일도’의 부활 팔일 축제 내 월요일 ‘독서기도’ 제2독서인 사르데스의 멜리톤 주교님의 부활 대축일 강론을 다시 읽었고, 이 주교님이 주님의 입을 빌려 서술한 다음과 같은 주님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다.나는 죽음을 떨하고 원수를 눌러 승리하였으며 지옥을 발아래 짓밟았고, 강한 자를 묶고, 인간을 하늘나라의 정상으로 올렸노라. 나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죄로 더럽혀진 너희 모든 백성들아, 자 오너라.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아라.

(2면에 계속)

파스카 성야

- 제 1 독 시 창세 1,1-2-2<또는 1,1.26-31>
- 회 답 송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 제 2 독 시 창세 22,1-18<또는 22,1-2.9>.10-13.15-18>
- 회 답 송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 제 3 독 시 탈출 14,15-15,1
- 회 답 송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 제 4 독 시 이사 54,5-14
- 회 답 송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제 5 독 시 이사 55,1-11
- 회 답 송 ◎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제 6 독 시 바룩 3,9-15.32-4,4
- 회 답 송 ◎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제 7 독 시 에제 36,16-17>.18-28
- 회 답 송 ◎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 시 깃 롬 음
- 회 답 송 ◎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 특 음
- 영 성 제 송 마르 16,1-7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었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2018년 부활메시지

나는 바로 너희의 용서이며 구원의 파스카이고 너희를 위해 도살된 어린 양이다. 나는 너희를 씻어주는 물이다. 너희 생명이고 부활이며 너희 빛이고 너희 왕이다. 나는 너희를 하늘나라 정상으로 데려가려 하고, 너희를 부활시키며 너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여주고 나의 오른손으로 일으켜 세우겠노라.”

저는 이 강론이 주님 부활의 의미를 잘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님의 부활은 주님께서 죽음을 떨하시고 원수인 마귀를 눌러 이기신 승리이며, 지옥을 짓밟으시고 강한 자를 묶으시고 우리 인간을 하늘나라의 정상으로 이끌어 올리신 의미, 곧 인류 구원의 대과업을 이루신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저는 여기에 추가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심은 주님이 참으로 하느님이시고 참으로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확인해주어,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복음을 살아가고 또 전파할 수 있게 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부활하리라는 굳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멜리톤 주교님은 주님의 입을 빌려 부활의 은혜를 입은 이들이 죄의 용서를 받으

라고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죄로 더럽혀진 너희 모든 백성들아, 자 오너라.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아라. 나는 바로 너희의 용서이며 나는 너희를 씻어주는 물이다.” 예수님 자신이 용서이시고 씻어주는 물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을 받으며 유혹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인간에게 지극히 소중한 하느님의 선물인 성적 욕망과 재물, 권위, 명예 등의 소유 욕망을 통해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이 범하는 죄들을 이렇게 열거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증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마르 7,21-22)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기에 포함하지 않으셨지만 어떤 면에서 가장 심각한 죄로 여기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위선의 죄’입니다.

주님께서 열거하신 죄들 가운데, 성적 욕망의 남용으로 인해 올 수 있는 죄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바로 불륜, 간음, 방탕입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신 이 죄들이 예나 지금이나 가장 쉽게 그리고 자주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3면에 계속>

주님 부활 대축일

<p>제 1 독 시 사도 10,34-37-43</p> <p>회 답 송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p> <p>제 2 독 시 콜로 3,1-4<또는 1코린 5,6-8></p> <p>부 속 기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p> <p>복음판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p> <p>복 음 영 성 제 송 요한 20,1-9<또는 마르 16,1-7 또는 저녁미사에서는 루카 24,13-35>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p>	<p>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주의염포 난보왔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곁에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p>
---	--

2018년 부활메시지

이는 누구나 조심해 피해야 하는 죄이며 인간의 명성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하는 죄입니다. 재물, 권위, 명예 등을 찾은 인간의 자연스런 욕망도 마찬가지로 남용 되면, 역시 무서운 비극을 초래하게 되며, 우리는 이미 이런 예들을 많이 보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에 떨어지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다음 말씀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욕심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다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야고 1,15) ‘이것은 잘못이다.’ 혹은 ‘이것은 죄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단호히 결단을 내려 중지하거나 거기서 떠나야 합니다. 그대로 머물며 즐길 때, 이는 큰 불행을 맞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는 이 결말에 대해 “죽음을 낳는다.”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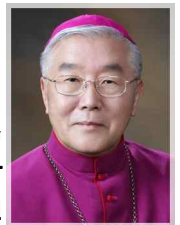
저는 구약의 위대한 성조 요셉이 자신의 주인 아내가 유혹해 올 때 “제가 어찌 이런 큰 악을 저지르고 하느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창세 39,9) 라고 말하면서 유혹을 물리친 일을 되새깁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느님 앞에서의 죄의식’ 이 두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종류의 유혹을 이기게 하며, 이로 인해 고통을 당한다 해도 궁극적으로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갖게 되는 이 ‘죄의식’이 우리 인간의 영적 성장과 인격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이것이 많은 축복을 가져다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죄의식’을 ‘복된 죄의식’이라고까지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죄의식’에 더하여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을 갖는 것 역시 ‘복된 죄책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 세관장 자케오가 지녔던 이 ‘죄의식’과 ‘죄책감’이 주님을 뵈고 싶어 하는 욕망을 일으켰고, 이 욕망을 아신 주님께서서는 그를 기꺼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이 만남이, 자신이 지금까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보속을 결심하여 주님께 말씀드렸고, 이 회개, 이 변화에 감동하신 우리 주님께서서는, 자케오 혼자만이 아니고 그의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III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더 확실하게 해주고, 더 나아가 이 믿음이 회개로 이끌어 주기를 희망하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부활 찬미가를 노래하면서 부활절을 지내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2018년 주님 부활 대축일
진주교 군중교구장
유수일 F.히비에르 주교

교 구 소 식

군중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주님 부활 대축일 : 월신 김진국 신부

◆ 교구장 동정

- 주님 부활 대축일 낮 미사
 때: 4월 1일(주일) 11:0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군중후원회 부활피정 및 월례미사
 때: 4월 2일(월) 9:30, 서울 압구정동 성당

◆ 군중장교 입영 진 오리엔테이션

때: 4월 5일(목)~6일(금), 1박 2일
 곳: 안양, 아론의 집

◆ 군중교구 교육국 직원 모집

자격 : 대졸 이상, 운전 가능자
인원 : 1명
접수 : 4월 20일(금)까지
자세한 사항은 군중교구 홈페이지(gunjong.or.kr) 참조

“군(軍) 복음화, 반침략은 열정으로” - “나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